

자치경찰제도 전국 확대 도입 언제쯤...

민갑룡 경찰청장 어제 제주방문... 자치경찰과 간담
“20대 국회 처리 힘들어... 진일보한 법안 준비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제주시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자치경찰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법안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길 원했지만 시간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민 청장이 입법을 바랐던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으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된다. 또 자치경찰제를 지난 2006년부터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합역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현재 자치경찰단장격인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후보자 추천 권한과 함께 자치 경찰규칙 제정 권한 등을 갖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자치경무관이 맡을 수 있다. 현 제주 자치경찰단장의 계급은 자치경무관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 청장은 경찰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것 같으며 연내 입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 청장은 “국회가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경찰법 전부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해 자치경찰과 간담을 가졌다. 강희만기자

개정법률안)을 선점해 올해 안에 입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제주도가 지금 시행하는 자치경찰 형태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민 청장은 제주 자치경찰제도가 대한민국 자치경찰 도입의 표상이며 계속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산실이라며 이런 성공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가 성공리에 도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국가 경찰로부터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분야에서 14종 사무를 넘겨 받았다. 또 국가 경찰 268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돼 자치경찰 인원이 151명에서 400여명으로 늘었으며, 종전에 없던 자치지구대 3곳과 자치파출소 4곳 등 7개 지역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파견 지원 받은 국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성공적인 지역 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소속 경찰관이 600명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11번 코로나19 확진자
퇴원→양성→퇴원→또 양성

제주 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 후 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아 세 번째 입원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30분쯤 도내 11번째 확진자 A(30대 남성)씨가 퇴원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대학교병원에 재입원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월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해 4월 21일 퇴원했다. 이후 4월 27일 오후 5시쯤 재양성 판정을 받아 재입원 조치됐다가 다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해 5월 5일 퇴원한 바 있다.

A씨는 퇴원 후 자가격리 7일째인 이날 오전 제주보건소에서 정기 검체 채취를 한 결과 재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에 3번째 입원하게 됐다. 자택격리중이던 A씨는 보건소의 수시 모니터링을 받아왔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윤기자



양귀비 꽃밭 11일 제주시 애월읍 향몽유적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관상용 양귀비 꽃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가파도서 응급환자 이송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낮 12시24분쯤 가파도에서 응급환자 A(여·60)씨를 긴급 이송했다.

관광객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3분쯤 가파도 남서쪽 ‘어멍아방’ 바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를 구조한 가파도 의용소방대원의 이송요청에 따라 연안구조정을 급파, 낮 12시24분쯤 화순

항으로 이송했다.

응급환자 A씨는 대기 중이던 119를 통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조 당시 머리 및 머리 타박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종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
은행권 홈페이지 접수 비교적 원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 제주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 오후 2시30분, 취재기자는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해 봤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찾아 안내문을 읽고 기본적인 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누르기까지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제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라고 적힌 팝업창이 떴다.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5월 11~15일)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나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신청자

격 등에 대한 안내문을 읽은 뒤 ‘신청하기’를 누르자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 목록이 나왔다. 우리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NH농협카드(BC),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중앙회, 케이뱅크 등 9개 카드사이다.

이어 정보입력란에 생년월일과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확인등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르자 신청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오늘 문제없이 인터넷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음주 객장 방문 신청시 다소 혼잡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시 지역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폭증

올 1~4월 전년 신청량 초과

제주시 지역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시에 접수된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은 2017년 하루 평균 500여건에서 2018년 650여건, 2019년 730여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신청량을 뛰어 넘는 하루 평균 860여건의 배출 신청이 들어왔다.

제주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바뀌고 모바일 등으로도 대형 폐기물 배출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제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대형폐기물은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장롱 등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봉투로는 배출할 수 없는

생활물품을 말한다.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시청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빠르게 수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하주세요.



제주도 로컬 태양광 강소기업 나눔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 신상품 출시!

SMP와 REC 판매가격 하락 추세로 사업이 고민되시는 신규 사업주님들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기본형	고급형	프리미엄형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1kW 시공단가 117 만원 부터~

(공통 사항: 하자 보증 이행 기간 5년)



나눔에너지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